

참여와 소통으로 감동을 주는

명품

# 경북교육

2012 여름 Vol.79



경상북도교육청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 지품초등학교

오 승 강

소리가 많다  
소리에 햇빛 한 자락 묻어 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소리가 모여 굴러 간다  
담 옆의 풀꽃들이 쫓긋 귀를 세운다  
거기 함께 귀 기울이는 아이들  
일순 세상이 숨을 죽인다  
앞니 빠진 미란이  
처음으로 책 입어내는 소리  
듣는다

## 작가 소개

현 포항송곡초등학교 교장, 197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시문학 천료, '새로 뜬 풀잎들을 보며', '피라미의 꿈', '그대에게 가는 길', '분교마을 아이들' 등의 시집과 동시집을 펴냄.

지품초등학교: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소재.

# CONTENTS



**04 기획 특집**  
 교육감 취임 2주년을 맞이하여



**10 인물 포커스**  
 영주영광중학교 황재일 선생님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김영수 코치



**12 경북교육 뉴스**  
 교육청 및 직속기관 소식 / 학교 소식

**16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보람**  
 취임새 넣는 아이들 / 소설을 읽으려고요? 고3인데요  
 재능동아리 「다문화탐구부」 / 마음으로 전하는 이야기



**20 문화 산책**  
 도전! 테마 책읽기  
 새로 나온 책

**22 경북교육 포토 스토리**

[www.gbe.kr](http://www.gbe.kr)



**표지 이야기**  
 취업 전문상담 선생님과 진로에  
 대한 토론과 상담을 나누는  
 문경공업고등학교 학생들  
 사진 \_ 진영대

**제80호 경북교육 소식지 원고를  
 모집합니다!**

기관별 우수 사례, 학교 소식, 미담 사례,  
 교직원 및 학부모의 글·그림·사진 등

보낼 곳: uds59@korea.kr  
 T. 053-603-3273  
 F. 053-603-3299

**발행일** 2012년 7월 2일  
**발행처** 경상북도교육청  
**발행인** 경상북도교육감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총괄** 김태원 기획조정담당관  
**편집위원** 황학영 정책조정담당 장학관  
 우동식 정책조정담당 장학사  
 남교회, 남준모, 신영수, 조은희  
 주금미, 한지영, 오인수



취임 2주년을 맞이하여

이영우 경상북도교육감의



실현 의지를

지난 2010년 300만 경북 도민들로부터 73.9%의 지지를 얻어 전국 시도교육감 중 최고 득표율로 재선된 이영우 경상북도교육감은 7월 2일 취임 2주년 기념사를 통해 경북 교육의 주요 정책 추진과 성과를 점검 및 반성하고, 향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에 이 교육감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명품! 경북교육」 실현 의지를 들어본다.

친애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올해 유난히 일찍 찾아온 여름 더위로 인해 절전, 절수의 지혜가 더욱 필요한 이 때, 자원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고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의 보람된 일과 앞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경북 교육 성과는 무척 자랑스럽고 알찬 결실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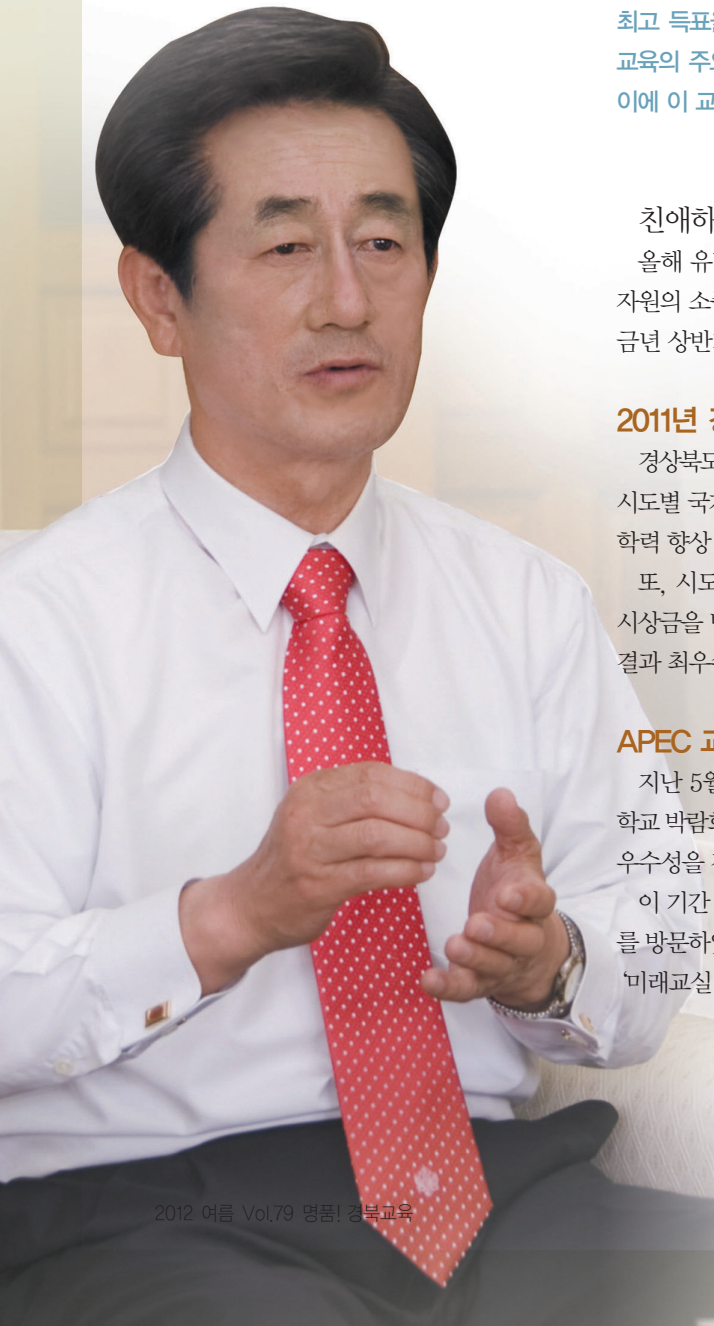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 해 학력신장에 힘써 교과부 기초학력 우수 교육청에 선정되었으며, 시도별 국가수준 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고등학교의 학력 향상 학교 수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많았습니다.

또,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매우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전국 최고인 130억 원의 시상금을 받았으며,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 평가 결과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APEC 교육장관회의와 좋은학교 박람회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된 APEC 교육장관회의가 영남권역 좋은 학교 박람회(80교)와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 등과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경북교육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중 각국 교육장관들은 초등학교 2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2교, 포스텍, 포스코를 방문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것은 월성초와 화랑중, 현대 호텔에서 운영된 '미래교실 테마관' 등 한국의 스마트 교육 현장을 각국의 장관들에게 선보인 것입니다.



# 듣다!



## 취업박람회를 통해 고졸 취업 성공 시대를 예고하였습니다.

올해는 또 직업교육 선진화 사업을 통하여 '선 취업 후 진학' 중심의 고교생 일자리 창출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구미코에서 열린 직업교육박람회에는 금년도 전반기에 취업이 확정된 고교생 120여 명과 도내 69개 특성화고, 50개 기업 및 여러 기관 등 1만 2,000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초청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고졸 취업 성공 시대'의 도래를 확인하고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 나눔의 행복을 실천하기 위해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창의·인성교육을 실시하고자 대학, 사회 단체, 기업들과 함께 교육기부를 통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확보·활용하고자 많은 MOU를 체결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본청과 지역교육청이 대학, 기업, 기관, 언론, 단체(기타)와 맺은 MOU 체결은 도합 340건이 되며, 다가오는 여름 방학 동안에도 52기관 및 1만 8천 200명의 개인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주5일 수업제를 모범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주5일제 전면 자율 시행에 따른 우리 도의 토요 방과후 활동은 전국 평균 20%에 비해 전국 최고의 참여율(40%)을 보이며 모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교과부와 타 시도에서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1인 1운동, 1인 1악기 다루기 등 스포츠와 음악이 주된 프로그램이 되고 있으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아픈 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하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인성 교육, 특히 사회성 함양 교육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소중한 삶의 토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정의 주인공이 되어 「명품! 경북 교육」의 일익을 담당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7. 2.

경상북도교육감

이영우

# 나눔의 행복을 실천하는 「e-드림이」

「e-드림이(e-Dreami)」의 e는 '교육(Edu)', 드림이는 Dream(꿈) + i(아이, 학생)의 합성어로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도움을 주는 모든 교육기부를 뜻하는 것으로, 드림이(Dreami)는 다양한 교육컨텐츠를 기부하여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나아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e-드림이」경북교육기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드림이」경북교육기부지원센터 운영은 지역의 모든 대학, 기업체, 유관기관, 연구소, 박물관(체험관) 등과 교육기부 MOU를 체결,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제공함으로써 창의·인성교육을 내실화하며, 교육기부를 통한 다양한 교육 경험 축적으로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전개하는 「e-드림이」3운동은 운동 하나, '꿈을 키우는 「e-드림이」 참여 운동 전개'로 교육기부에 직접 참여하거나 미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운동 둘, 매월 첫째 주 수요일 '교육사랑 「e-드림이」의 날 운영'으로 교육기부 MOU 체결을 확대해 나가며,

운동 셋, '정이 담긴 「내 고향 교육 멘토」활동하기' 프로그램을 통해 출향인, 동창회, 대학생 등 원거리 교육기부자들이 지식봉사, 교육상담, 생활상담, 진학지도 등을 통해 교육기부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e-드림이」3운동 전개를 통해

본청과 지역교육청이 맺은 MOU체결은 현재 340건이 되며, 여름방학 동안에도 52기관 18,200명의 개인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e-드림이」홍보대사 운영, 교육기부 홍보바이러스 보내기, 온/오프라인 교육기부 홍보 등 교육기부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교육기부 문화 조성 및 교육 복지 구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여 주5일수업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고,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창의·인성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e-드림** 교육기부, 함께 나누면 꽃이 핍니다

### 『Wee버스 특별프로그램』으로 재능기부 날개 달다!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락)은 Wee버스 특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미 LIG손해보험 배구단과의 MOU체결을 통해 2012년 3월부터 LIG-Wee버스 희망배구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상담 활동을 병행하면서 스포츠를 통한 긍정적 에너지 발산을 유도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 창의적 체험학습은 소백산에서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용호)은 3월 20일에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교육기부일환으로 소백산 자락길 추진위원회와 MOU를 체결

하였다.

우리 지역의 소중한 생태자원인 소백산 자락길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인성적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아울러 지역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출사동이 선비 체험 교실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서서규)은 문경 최초의 사립교육기관이었던 근암서원이 복원되자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 문경시청과의 MOU체결을 통해 '선비체험 및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선조들의 전통생활문화와 선비문화를 체험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 「선 취업 후 진학」을 통한 특성화고의 고졸

경상북도교육청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졸 성공시대를 열기 위하여, 2011년부터 특성화고의 체제를 경북의 전략 산업에 맞추는 ‘특화된 직업교육 기관’으로 개편하였다.

기업체·대학 등과 공동으로 취업-학업 병행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기업체 밀착형 산학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 역량을 기른 결과, 취업률 100%를 지향하는 취업 명품학교 육성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 □ 연도별 취업률 및 목표

구 분	2010년	2011년	변	2013년	2014년	비 고
목표 취업률	25.0%	38.0%	60.0%	65.0%	70.0%	표 준
달성 취업률	31.0%	41.3%				2012.4.1기준
최소 취업률	16.0%	30.0%	45.0%			표 준

## 2012 경상북도취업박람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은 ‘고졸 취업문화 정착과 성공 취업’을 위하여 2012년 6월 19일~20일 구미코(구미컨벤션센터)에서 2012 경상북도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50여 개의 기업체와 금융기관이 참여하며,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취업 정보 및 직업교육과 창업에 대한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 및 취업률 상승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경상북도일자리종합센터,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고용부 구미고용센터가 협조하였으며, 당일 현장에서 면접자 706명 중 313명이 채용되는 실적도 올랐다.

2012 경상북도취업박람회는 기업체 홍보 및 채용, 직업교육 홍보, 다양한 창업비즈니스 체험을 통하여 학생에게는 취업 희망을, 기업체에게는 우수 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졸 성공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 성공시대를 열었다!



## 우수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 역량 강화 사업은 취업 중심 학교로 재편하여, 취업처 발굴로 학부모 인식을 전환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며, 취업을 제고 및 취업 우수 선도 특성화 고등학교를 발굴·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올해는 20개 학교를 지정, 학교별 1억 원 예산을 내외로 차등 지원하여 취업을 제고를 통한 특성화고 취업 문화 정착에 주력하고 있다.

취업문화 정착을 위한 주요 추진 내용

항 목	주 요 추 진 내 용
취업마인드 함양	나의 꿈 나의 도전, 산업체 인사 초청 특강, 취업 캠프, 취업엘리트반 운영, 인성교육(다도, 예절), 현장체험학습 등
인프라 구축	산학협약 체결, 전문교과 교사 연수, 선진지 견학 등
취업 지원 활동	기능 연마 활동, 추수지도 및 업체 방문, CEO 및 채용 담당자 취업 설명회 등
취업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활동 강화	학생 인성, 서비스마인드,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 등

##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경상북도교육청은 2011학년도에 특성화고교생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글로벌 현장학습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되었다. Career-path에 기반을 둔 대표 사례로 (주)아진산업은 특성화고 및 대학생 20~30명을 선발하여 아진USA에서 3개월간 현장실습 기회를 부여한 학업·취업 병행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금오공고에서는 중국 현지 주재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내 본사를 두고 중국에 진출한 기업체에 학생들을 파견하여 글로벌 현장학습을 실시한 것을 들 수 있다.

2012학년도에는 해외인턴십 사업을 위해 파견 국가를 확대하고 있다. 5개국 80명을 파견할 예정으로 6월 9일에 글로벌 현장학습 참가 대상자를 선발하였다. 5개국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 미국 : 학업·취업 병행 프로그램 운영
- ☐ 중국 : 현지 주재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 ☐ 호주 : 해외 취업 및 호주 기술대학 학업 병행 프로그램 운영
- ☐ 캐나다 : 국제 자격증, 국외 취업 연계 과정 운영
- ☐ 일본 : 유아 보육 전문인 양성

## 모듬북 소리로 학생들의 인성을 일깨우는 황재일 선생님

모듬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영주 영광중학교에 황재일 선생님이 계신다. 황 선생님은 26년 동안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는 선도자로서 모범을 보이며, '세로토닌'이라는 모듬북 동아리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비행 탈선 예방에 앞장 서고 계신다.

'학생들은 주변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 속에 올바른 인성을 형성하고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평소의 신념이 모듬북 동아리 속에 듬뿍 묻어 있다.

### 이 시대의 페스타로치 선생님

"현장 교사의 역할은 성적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는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황 선생님은 그동안 매년 사회복지 시설인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1995년부터 RCY활동에 지도자로 참여하면서 전통문화 체험캠프를 운영하여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창의·인성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하는 등 학생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 모듬북 울림 속에 인성도 둥둥둥...

선생님은 소위 '문제 학생'이라 불리는 아이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시간을 줄이려는 욕심으로 모듬북 동아리인 '세로토닌'을 조직하였다. 북이라는 규칙적인 리듬운동을 통해 뇌에서는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해소된 탓인지 서로에게 난폭하고 상처를 주며 출구 없는 좌절감으로 괴로워하던 25명의 학생들이 북을 치며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감동을 선사해 주고 있다. 황 선생님은 2년여 활동을 통하여 전국에 모듬북 동아리 붐을 일으켰으며, 금년 가을에는 터키 이스탄불로 해외 공연을 떠날 예정이다.

우리 사회는 10%의 리더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말이 있다. 모듬북 동아리 '세로토닌'은 한 사람의 열정이 조직을 얼마나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는 황재일 선생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등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열정과 희생으로 일궈낸 시골학교의 기적! 김영수 코치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체육청소년 담당 김영수 코치는 체육업무 외에도 초·중학교 육상선수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해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전국 규모의 육상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해 주변으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 미래 육상왕을 키우는 성주 육상의 전설

그는 대학 시절 육상을 전공했던 경험을 살려 성주 지역의 학생들이 미래 육상왕의 꿈을 실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전국 규모의 육상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함으로써 그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다. 2011년 '제40회 전국 소년체육 대회'에서 도원초 노지현 학생이 멀리뛰기 1위, 가천초 김경훈 학생이 포환 던지기 2위, 2012년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노지현 학생이 멀리뛰기에서 다시 1위를 차지해 영광의 2연패를 달성하였다.

“저는 자신이 늘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그 부족함을 메우려고 노력하다 보니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실적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훈련에 참여해 준 학생들과 자신의 생활보다 학생 지도에 전념한 그의 노력과 희생으로 맺어진 결과이다.



###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더욱 빛나다

전국소년체전 멀리뛰기 선수지도로 2연패의 영광을 달성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우선시하는 겸손함이 그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다. 그는 “지현이가 3학년 때 육상에 입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도갑호 선생님, 학교에서 체육 업무를 담당하면서 육상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김창덕·서재명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할머니와 단들이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부족한 나를 믿고 힘든 훈련을 묵묵히 참고 견뎌준 지현이가 너무 대견하고 고맙습니다.”며 그 공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다.

“퇴임을 할 때까지 지역의 육상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올림픽에 심판자격으로 꼭 한번 출전해 보고 싶다.”는 그의 말에 육상에 대한 열정과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 가슴이 따뜻해진다.



## 하나 되어 만드는 청렴한 좋은 세상

경상북도교육청은 6월 13일 구미역 일원에서 교육청공무원과 민·관 협력 시민단체(안전지킴이운동본부, 포항YMCA 등 5개 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렴 캠페인을 전개했다. 참가자들은 시민들에게 청렴 홍보물을 배부하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청렴 문화 확산에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교직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만화로 보는 '청렴 내비게이션'을 발간해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 앞서가는 연수! 변화하는 스승의 전당

경상북도교육연수원(원장 김창수)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한 2012년 시·도 교육연수원 기관종합평가에서 '우수' 연수원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러한 성과는 수준 높은 연수 운영, 교직원 전문성 신장, 맞춤형 연수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육수요자 및 전문가 자문기능을 강화한 결과이다.

4월부터 성황리에 개최된 '금오산 봄꽃과 함께하는 토요일 명사초청 강좌'는 앞서가는 연수 변화하는 교육연수원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 아이(eye) 사랑으로 내 안경이 생겼어요!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우은복)은 6월 18일부터 2일간 성덕대학교에서 시력 교정이 필요한 초등학생 112명을 대상으로 '아이(eye)사랑 학생 시력 관리 사업'을 실시했다. 이 행사는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저소득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성덕대학교 안경광학과 박상열 학과장은 "뜻 깊은 행사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본교 학생들에게도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기부와 나눔, 최고의 선물입니다

도촌초등학교(교장 김연교)는 다양한 기부와 나눔 활동 전개로 기부 문화 확산 및 청렴 교육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5월 2일에는 총동창회와 함께하는 나무 기증 행사가 펼쳐졌으며, 학부모들은 자녀들과 다문화가정 일손 돕기, 학교 명예 교사, 재봉틀과 연모 사용 지도 등 교육 기부활동을 펼쳐 학생들에게 나눔과 배려, 실천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예천남부초등학교(교장 한중근) 4학년 양지석 군의 놀라운 특기가 6월 7일 SBS 프로그램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방영되어 시청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마을 이장의 제보로 방송에 출연하게 된 양지석 군은 트랙터, 경운기, 포크레인 등 큰 농기계나 농기구를 자유자재로 운전할 뿐 아니라 농사일을 어른 처럼 척척 해내는 대단한 실력을 선보였다.



## 3대가 함께, 하나 되는 동그라미

압량초등학교(교장 신옥균)는 6월 30일부터 양일간 경주 콩코드호텔에서 30가정을 대상으로 3대가 함께하는 '하나 되는 동그라미' 가족캠프를 실시했다. '마음 문 열기', '자신 표현하기', '부모님과 함께하는 하이킹'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촉진시키며 참석한 가족들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었다.



## 우리는 하나! 1004 어린이 합창 공연

파천초등학교(교장 김종상) 4~6학년 학생 전원이 6월 2일 여수세계박람회 빅오 해상무대에서 열린 '우리는 하나! 1004 어린이 합창' 공연에 참가해 큰 박수를 받았다. 행사에 참가한 파천초 학생들은 '초록우산 MBC 1004 어린이 합창단' 일원이 되어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4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아리랑' 외 3곡을 합창해 노래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순간을 선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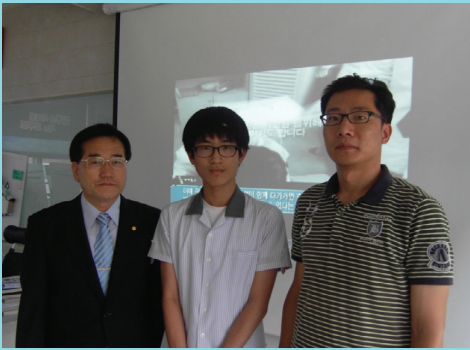




## 나는 나는 무엇이 될까?

함창중학교(교장 주화중) 2학년 학생 39명은 6월 1일에 상주도서관 주관 '도서관과 함께하는 1318 책·꿈·감성플러스(+)' 행사에 참여해 한국 잡월드에 다녀왔다. 학생들은 <직업세계관> <진로설계관> <청소년 체험관>을 체험했으며, 꿈을 실현한 직업인(서울대 이상목 교수)과의 대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체험활동은 학생들에게 미래의 직업을 탐색하고 건전한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행복한 교실 이야기, 들어 보실래요?

옥산중학교(교장 조용구) 3학년 최보근 학생의 학교폭력예방 UCC 작품이 6월 20일 KBS1TV '교실이야기'에 방송되었다.

이 작품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모든 과정을 학생이 직접 연출, 편집, 출연한 동영상으로 학교 내 갈등과 문제를 학생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보근 군은 "앞으로 학습자 주도로 창의 인성을 함양하는 동영상을 제작해보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 I ♥ 베이스볼, 천금의 동메달 획득!

구미중학교(교장 정덕관) 야구부가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창단 이래 첫 동메달 획득이라는 큰 경사를 맞았다. 1983년에 창단된 야구부는 현재까지 많은 야구 선수를 배출했으며 이 결과는 학교, 학부모회(대표 김기철)가 합심 단결하고 시·도교육청, 구미시체육회, 경북야구협회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이뤄낸 결과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 교장은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들이 장하고 자랑스롭다. 이 결과가 더 큰 꿈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크게 격려했다.



2012 여름 Vol.79 명품! 경북교육



## 좋은 학교의 큰 힘! 그린과 스마트

선덕여자고등학교(교장 김상환)는 5월 21일부터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2012 영남권 대한민국의 좋은 학교 박람회'에 참가해 큰 인기를 끌었다. '그린과 스마트'를 주제로 꾸며진 선덕여고 부스에는 APEC 교육장관회의에 참석한 수많은 국·

내외 교육관계자들이 방문했으며, 특히 차드 공화국 Zoutane Kada 교육부장은 선덕여고에서 제작한 교재의 공유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 나의 사랑! 나의 조국!

점촌고등학교(교장 곽호열) 1학년 남학생 84명은 6월 25일에 6·25 발발 62주년을 맞아 철원 제2땅굴, 평화전망대, 경원선 월정리역사, 폭격 맞은 기관차 등을 둘러보는 안보견학을 실시했다. 견학 마지막 날엔 연천에서 탈북자 강연을 들은 후 이 땅을 피 흘려 지켜낸 국·

내외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의 명복을 비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국가안보의식, 호국의식, 애국심을 고취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012. 6. 25

## 희망을 나르는 수호천사들

약목고등학교(교장 손준달) 학생 및 교직원들이 한국백혈병소아암 협회에 60여 장의 헌혈증을 기부했다. 3학년 박주아 학생은 "소아암 환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가슴 뿌듯하다.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관심과 지속적인 사랑을 보내주고 싶다."고 했으며, 이번 행사에 참가한 이들은 앞으로도 헌혈증 기부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수호천사가 되어 주기로 약속했다.

강현준, 김종석, 박호성, 배아영, 손지희, 배세아, 이혜령, 장유희, 최현수, 강은비, 권지영, 김유진, 조성진, 박정재, 박주아, 백재원, 이다솜, 이은지, 이혜인, 정규재, 조세영, 주혜진, 황보현, 권성훈, 김보미, 김준호, 박수진, 김동연, 김승범, 손지수, 유현경, 윤정현, 임수연, 정민수, 진유지, 최영식, 김연아, 김세경 선생님, 이동신 선생님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위치한 약목고등학교 학생들은 새 학기를 맞이하여 뜻 깊은 봉사를 하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일부분을 후원하였습니다. 헌혈을 통해 소아암으로 치료 받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수호천사가 되어 준 것입니다. 약목고등학교 이동신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학기 초 의미 있는 일을 계획하다 협회를 통해 소아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아들을 만나게 되어 이번 후원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앞으로 학생들이 꾸준히 선행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학생들의 선행에 칭찬 하셨습니다. 약목고등학교의 능률하고 멋진 51명 학생들은 소아암 어린이들의 수호천사입니다!

# 추임새 넣는 아이들

금오공업고등학교 교사 하정숙

비는 뿌린 후에 거두지 않음이니  
나도 스스로 사랑으로 주고  
달라진 양우리라  
아무것도

- [빛물 같은 정을 주리라](김남조) 중에서 -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혹여 내가 준 사랑에 보답하지 않는다고 서운해 한 적은 없었던가?  
돌아보니 참으로 많았던 것 같다. 야속하게 생각한 적도 많았다. 시인의 시를 읽으며 뿌린 후에 거두지 않는 '비'와 같은 선  
생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배운다.

국어 시간, 블로그를 이용한 <꿈을 소개합니다>를 공부하면서 인터넷의 쌍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온 인터넷 문화를 남용하지 말라고만 아이들에게 말할 수는 없다고 여겼다. 아련한 추억이 담긴 아날로그적  
삶도 아름답지만 이미 디지털 시대 깊숙이 들어와 살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언어를 정확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  
해 보았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활동하는 카페 <하정숙의 국어교실> 공간에서 서로에게 댓글(선플)을 달자고 제안하였다. 귀찮아하  
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지만 한 명 한 명씩 글에 댓글을 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쩌면 아이들 마음밭이 이렇게 넓을까? 서로의 글에 격려하며 '멋진 추임새를 넣는 아이들의 글을 읽으며 마음을 주고  
받는 아름다운 선물들을 본다. 우리 아이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며 학교의 엄격한 규칙에 적응해야 하는, 조금은 '아날로그적'  
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멋지게 서로 어깨동무를 해가고 있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힘든 이야기를 '토해내듯' 적어 놓은 친구의 일기에  
토닥이며 댓글을 달 줄 아는 따뜻한 아이들의 선생이 된 것이 참으로 행복하다.  
댓글에 서로의 마음을 조롱조롱 달고 응원하는 우리 아이들의 정(情)을 읽으며,  
나 역시 댓글을 주렁주렁 달아준다. 서로 나누며 사는 모습을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보며.



# 소설을 읽으라고요? 고3인데요

홍해공업고등학교 교사 김 옥 주

“학기말 고사 끝난 후엔 소설을 읽을 겁니다.”

“선생님, 우리 고3인데요. 그것도 전문계 고3이요.”

“단,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줄 겁니다. 시원한 교실이나 도서관에서 책 읽기, 복도에 나가 놀기.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학기말 시험이 끝난 후엔 수업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난리를 치던 아이들은 시원한 교실을 선택했다. 기꺼이.

그렇게 시작된 성장소설 읽기. 아이들 또래의 주인공들이 사랑하고, 싸우고, 가출하고, 이성 친구를 사귀고, 학교생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아이들에게 학교도서관 저널에서 추천한 100권 이상의 성장소설을 안내했다. 아이들은 소설을 읽으며 차츰 새로운 세계와 만나는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했다. 수업 시간마다 줄던 아이가 마침종이 쳤는데도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한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책을 끝까지 다 읽었노라고 뿌듯해한다. 만화가 아니어도 재미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다.

며칠 전, 이성 교제 중에 아기를 가지게 된 내용의 책을 읽던 ○○와 대화를 나누었다.

“어땠어?”

“여자가 아기를 가지면 그렇게 힘 드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랬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는데?”

“남자가 함부로 힘을 쓰면 안 되겠어요, 선생님.”

나는 안다. 그가 힘을 쓰지 않겠다는 건 책임질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여인과 몸으로 사랑을 나누겠다는 얘기란 것을. 얼마나 훌륭한 성교육인가. 이 아이가 고3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성교육을 받았을 것인가. 하지만 이렇게 절실하게 여성의 입장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

지금 우리 학교 아이들 입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성장소설이라는 말이 나온다. 성장소설과 더불어 ‘천천히 가도 바르게 가는’ 참다운 성장의 의미를 조금씩 느껴가며.

|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보람 |

CCAP와 함께 세계를 내 품 안에

재능 동아리 



장곡초등학교

교육공동체가 서로 나누는 '프로 보노' 활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동아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재능동아리 『다문화탐구부』는 한 달에 한 번 CCAP라는 특별한 체험을 나누고 있다.

CCAP(Cross-Cultural Awareness Programme)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문화교류 활동가(CEV)와 한국어 통역자원 활동가(KIV)가 함께 학교로 찾아와 해당 국가의 문화, 풍습, 언어 등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청소년 국제문화이해 교육 프로그램이다.

다문화탐구부는 CCAP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1년간 총 6회의 CCAP를 통해 각 나라의 전통춤, 놀이, 전래동화, 노래 등을 배우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모두 3회의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시간,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온 흑인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섰을 때 아이들의 함성에 맞추어 외국인 선생님도 함께 환호하며 생생한 문화체험을 시작하였다.

두 번째는 아시아의 홍콩에서 온 여성 선생님과 홍콩의 춤과 노래를 배웠고,

세 번째는 아프리카의 모로코에서 온 선생님과 모로코의 음식과 집 등에 대해 배웠다. 책에서만 보던 것을 직접 경험해봐서 정말 좋았다던 아이들, 프로그램이 끝날 때 작성한 평가서에는 다음에 꼭 이웃 나라 모로코에 가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외국인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도시,

그동안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절감했었는데,

『다문화탐구부』에서의 작은 경험이 시작이 되어

세계를 향한 아이들의 비전을 이루는 작은 발걸음이 되리라 생각된다.



102 여를 01.79 명품! 여를 01.79

마음으로 가려는  
이야기

## 아이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 희망의 디딤돌

교육현장에서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복지사 선생님이 계셔서 글을 올립니다. 영주시 풍기읍 풍기초등학교 백은숙 복지사 선생님입니다.

올해 2월 파출소장으로 부임한 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 복지사 선생님과 자주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는데 만날 때마다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요즘도 불우한 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 쓰는 교직원님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고, 더불어 저 또한 학교폭력 예방과 어린 아이들의 바른 심성교육,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어린 학생들의 지원 방법 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4월초, 파출소를 방문하신 선생님께서 파출소와 풍기초간의 업무협약을 맺어 불우한 환경 때문에 자칫 비행의 늪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지역 자원을 활용 생활지원 및 심성교육 등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4월 26일 파출소와 풍기초간에 업무협약을 맺었고, 저는 지역 유지들을 찾아다니며 학생들의 심성교육의 중요성을 말하며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돕자는 취지를 피력한 결과 드디어 민·경 봉사동아리 『소백 희망 사랑나눔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업무협약 후 나눔회를 통해 경찰관과 민간인들이 불우환경 학생지원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여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너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고,  
아담한 체구의 작은 선생님의 큰 열정이  
경찰관과 지역 주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 백은숙 복지사선생님.

일부 직원들의 비리 등 불미스러운 일로 조직 전체가 국민들에게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요즘, 특히 교육계에 이런 열정을 지닌 교육가족이 계신다는 것이 너무 부럽습니다.

풍기파출소와 초등학교 간에 맺은 업무협약으로 풍기북부초, 봉현초 등 불우환경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의 협의를 부탁드리며,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열정과 정성으로 인술을 펼치고 계시는 백은숙 선생님께도 격려 부탁드립니다.

〈 2012. 6. 29. 경북교육청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이광섭 경감(경북영주경찰서 풍기파출소장)님의 글 〉

와우!  
신나는 여름 방학



# 도전! 테마 책 읽기

- 나에게 딱 맞는 적성, 진로, 직업을 찾아보자 -



## 초등 추천 도서

### 어린이 직업백과

〈 저자 - 글공작소, 출판사 - 아름다운사람들 〉

자신의 성격과 기질을 10가지로 나누어 알맞은 직업을 찾아 주고, 자신이 어떤 성격과 기질의 소유자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그 기질들이 어떤 직업에 가장 큰 재능으로 발휘될 수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직업 옆에 직업 옆에 직업

〈 저자 - 파트리시아 울, 출판사 - 미세기 〉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있는 직업인의 모습을 재미있는 일러스트로 보여 주고, 현장감을 더해 주는 사진들을 곳곳에 배치하여 책 읽는 재미를 높였다.

## 중등 추천 도서

### 너의 꿈에는 한계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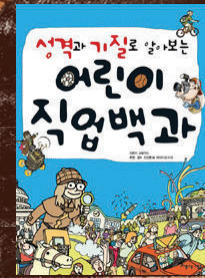
〈 저자 - 이영남, 출판사 - 민음인 〉

청소년들이 '가장 되고 싶고, 알고 싶은' 직업 16가지를 살펴보고, 해당 분야 종사자와 인터뷰를 통해 직업관을 알아본다. 청소년과 사회 초년생들에게 올바른 직업관을 갖도록 안내해 주고 직업 세계에 대한 자침이 되어 줄 것이다.

### (십대를 위한)직업 콘서트

〈 저자 - 이 랑, 출판사 - 꿈결 〉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 십대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직업 관련 정보들을 모아, 그들이 진정 원하는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 이 책 어때요? 새로 나온 책

- 책책 북북 베스트셀러 따라잡기 -



초등 신간 Book

## 양파의 왕따 일기2

< 저자 - 문선이, 출판사 - 파랑새 >

어린 초등학생들이 성적과 입시 경쟁의 압박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요즘,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왕따 현상을 생생하게 그려내었다. 왕따 당하는 아이들, 왕따를 방관하는 아이들, 그리고 왕따를 시킨 아이들... 그 아이들의 마음 상처를 따스하게 보듬는다.

## 멍청한 편지가?

< 저자 - 황선미, 출판사 - 사공주니어 >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그 순간, 아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가득 찬 아이들이 사춘기라는 급격한 변화를 겪기 시작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풋풋했던 첫 사랑의 기억, 아이들은 첫사랑을 어떤 느낌으로 간직할까?

중등 신간 Book

## 무엇이 되기 위해 살지 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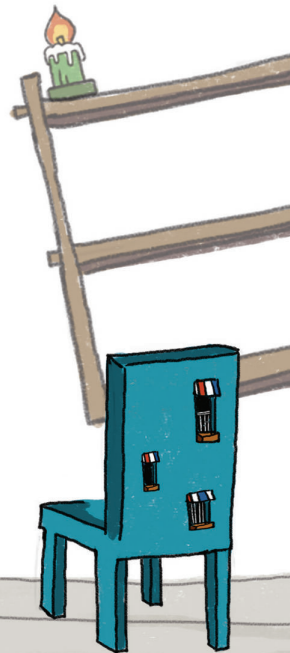
< 저자 - 백지연, 출판사 - 알 마 >

"잘 산다의 기준은 뭘까?  
영국 BBC, 미국 CNN,  
한국 파퓰리사이드,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취임 후 인터뷰한 단 3곳이다.  
'세계은행 총재 김용의 마음 습관'이라는 부제에서 보여주듯 그의 더 넓은 생각과 비전을 그리고 진솔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 현실, 그 가슴 뛰는 마법

< 저자 - 리처드 도킨스, 출판사 - 김영사 >

최소 원자에서 무한 우주까지 가슴 벅찬 현실의 세상을 보여주는 과학적 논증과 해설, 270여 장의 그림이 눈부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비롭고 기적적이며 마법적인 것이 어떻게 해서 '과학적인 사실'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명료하게 밝힌다. 과학으로 이해된 현실은 어떤 기적보다 경이롭고 아름답고 황홀하다.



# 경북교육 소통 스토리



## 5월

- ① APEC 교육장관회의 교육홍보관 개관(5.22)
- ② APEC 교육장관회의 학교 방문(5.22)
- ③ 영남권 좋은학교 박람회(5.21)
- ④ 장흥중 합창경연대회 학부모참여(5.18)
- ⑤ 좋은학교 박람회 공연팀(5.21)
- ⑥ 어린이큰잔치 행사(5.5)
- ⑦ 청림실천과 감사나눔 음악회(5.21)
- ⑧ 에듀스터디 공모전 및 실천사례 연구의 실제 연수(5.21)





9



10



12

# 6월

- ⑨ 엘리버마 어번시 관계자 경북교육청 방문(6.11)
- ⑩ 창의성과학교육지원단 워크숍(6.22)
- ⑪ 청소년과학탐구대회(6.9)
- ⑫ 감사원 자체감사 우수기관 표창(6.29)
- ⑬ 청렴도 우수기관 기념패 수여 및 청렴선도클럽 창립식(6.28)
- ⑭ 독도탐방체험학습(6.5)
- ⑮ 국방부와 원어민정책임보체험학습(6.28)



14



15

# 7월

- ⑯ 토론교육시범교육청 워크숍(7.4)
- ⑰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7.4)
- ⑱ 난치병학생 돕기 애린복지재단 천만 원 기증(7.5)



16



17



18

22  
+  
23

# 교육기부 나눔은 기업 교육의 힘입니다.

## 교육기부란?

단체·기관 및 개인 등이 보유한 물적·인적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활동, 학교 밖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가 없이 제공하는 교육 분야의 나눔 운동

## 교육기부가 왜 필요할까요?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통해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대한민국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필요

## 교육기부는 누가 할 수 있나요?

기업(공기업 포함), 교육기관(대학 등), 공공기관(정부기관, 연구소, 지자체, 산하기관 등), 개인 등 누구나

## 교육기부하는 방법

- ▶ 「기부하기」: 경상북도교육청홈페이지 / 참여마당 / 교육기부신청서 다운받기 / 기부하기등록에서 파일 탑재
- ▶ 「교육기부 받기」: 교육기부 자원 선택 / 기부기관 및 개인에게 직접 신청